



‘통일쌀 한평 가꾸기’ 사업

내가 가꾼 한평... 통일 ‘성큼’

‘통일쌀’은 북쪽 주민들의 기아를 해결하는 인도적 의미 외에도 통일열기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메신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둔 FTA타결 등에 따른 개방시대의 위기를 타개하고, 경작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작지 이렇게 마련한다=‘통일쌀 한평 가꾸기’ 사업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운동본부를 결성,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통일쌀 한평 가꾸기’ 광주·전남 운동본부는 6월1일부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CMS(자 동 이체서비스)와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해 1개와 5천원 모금을 시작한다.

■ 어떻게 추진되나

ARS 계좌 모금 경작지 30만평 확보

10월께 수확 12월초 육로로 쌀 복송

AR는 9초 이상 통화할 경우 1인당 2천원의 성금이 적립된다. 모금대상액은 최대 30만평과 15억원으로, 이 기금은 ‘통일쌀’ 구매·수송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운동본부는 또 광주·전남지역 27개 시·군·구마다 1만평 이상 전체 30여만평의 경작지를 확보, 농민들과 파종 때부터 도정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운동본부는 30일 현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만1천여평을 마련해온 상태다.

◇시기별 계획은=운동본부는 30일 광산구 삼도동에서 ‘통일쌀 한평 가꾸기 사

업단지’ 현관식과 함께 모내기를 실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6월부터는 6·15축전 등 통일행사장에서 계좌 모집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7~8월에는 여름 농촌봉사활동과 청소년 견학사업계획이 들어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재배과정에서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 견학사업, 대학생 농활 등을 전개해 개방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께 수확을 한 뒤 도정작업, ‘통일쌀’ 복송 환경대 등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북송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북송방법은 남북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육로운송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통일의 초석된다=‘통일쌀’ 사업은 지금까지 쌀을 모아서 북쪽에 전달했던 것과는 달리 전 국민이 모금에서부터 재배, 가공과정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발한 광주·전남사업은 광주를 ‘민주·평화·인권’의 도시에서 ‘통일’의 도시로 우뚝 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FTA 타결, 수매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농촌에 희망을 주고 통일농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 향후 북쪽과 다양한 경제교류를 모색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김정길 광주·전남본부장

“자라나는 세대 위한 통일 학습의 장”



“통일쌀 사업은 지역농민과 북녘동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통일쌀 한평 가꾸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이 사업은 준비된 통일을 위한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본부장은 “자라나는 어린세대에게 통일을 위한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다면 “더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사업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5·18정신의 완성은 곧 통일”이라며 “광주·전남지역 시·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대해 크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시·도민이 참여, 통일의 초석을 다지게 될 ‘통일쌀’ 사업이 시작됐다. 풍물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통일쌀 한평 가꾸기’ 운동본부가 30일 광산구 삼도동 들녘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나평기자 mjna@kwangju.co.kr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전체회의

南, 평화정착 국책기관 회의 제안

北, '3대 장벽' 철폐 재차 촉구...쌀 문제 언급 없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정착 등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회의를 제안했다.

북측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장벽’ 철폐 문제를 다시 제기했지만 남북 쌀 차관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남북은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장관급회담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기본 입장을 주고 받았다고 고경민 남북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회의 제안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정착의 긴 과정과 민족경제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측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 단계 높은 평화를 구축하자고 강조하며 조속한 북핵 ‘2·13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북측 단장인 권효용 내각 책임참사는 이에 대해 “2·13합의 이행 안된 이유는 남측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연한 것이 아니라 미측이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남측은 이 밖에 ▲국방장관 회담 개최 ▲철도 단계 개통 ▲국군포로·남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고 대변인은 우리측 의제에 대해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보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민족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북측은 기초발언에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으며 냉전의 구태도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족문제 해결에 외세의 압력을 배제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냉전의 얼음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 국가보안법 등을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어떤 정세변화에도 끄떡없는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했고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의제 각각 ‘평화정착’과 ‘민족우선·민족중시’로 갈리면서 이번에 손에 잡히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남북 대표단은 오후에 행사산상으로 공동참관에 나서는 한편 수시로 수석최고 ▲철도 단계 개통 ▲국군포로·남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문화수도, 천재들을 길러라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 24일 ‘천원의 낭만’ 공연이 열렸던 광주문예회관. 자그마한 체구의 피아니스트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다. 첫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그는 이어 감미로운 터치로 시작해 폭풍처럼 몰아치는 라벨의 ‘왈츠’를 연주했다.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연주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이날 무대에 선 피아니스트는 최근 프랑스 에피탈 국제콩쿠르에서 대상과 프랑스 음악가상을 수상한 임효열(21)씨였다. 현재 독일 하노버 음대에 재학중인 그는 이번 연주를 위해 독일에서 날아왔다. 이날 연주한 라벨의 곡은 콩쿠르에서 그에게 우승을 안긴 곡이다.

1부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그를 만났다. 임씨의 고향은 광주. 초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녔고, 3학년때는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연주회 개런티는 비행기 값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는 “고향인 광주에서 연주할 수 있어 이번 초창이 너무 반가웠다”며 “기회가 닿으면 자주 무대에 서고 싶다”고 했다.

요즘 세계 유명 콩쿠르를 휩쓰는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다. 젊은 연주자들의 콩쿠르 입상은 ‘클래식 스타’도 탄생시켰다.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선욱의 공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고, 소련 콩쿠르에서 입상한 임동혁·동민 형제 역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역 출신 연주자들의 난보도 잇따라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광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름(25)씨가 알버타에서 열린 제7회 이슬람 페트리올 국제콩쿠르에서 일등상과 모차르트상을 받았다. 또 무인 출신인 바이올리니스트 황요한(14세)군은 지난 23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예비학교에 합격했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젊은 연주자들은 광주가 키워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들에 틀림없다. 이제 막 날아오르기 시작한 젊은 연주자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격려와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무대, 광주시항 등 시립단체들과 협력무대를 마련해 주거나, 광주시가 주최하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역시 삼익콩쿠르(삼금1천만원) 우승자에게 달랑 삼금만 전달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음악관들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지도 모른다. 그 영광의 순간이 온다면, 디딤돌을 놓아준 우리에게도 참 가슴 벅찬 일이 아닐까.

지역민이 키워낸 젊은 연주자들은 어쩌면 ‘제2의 김선욱’, ‘제2의 임동혁’을 넘어 광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음악관들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지도 모른다. 그 영광의 순간이 온다면, 디딤돌을 놓아준 우리에게도 참 가슴 벅찬 일이 아닐까. /mekim@kwangju.co.kr

삼성빌딩 임대

층/별/안/내

- 7F 사무실
- 6F 146평 (분할가능) 병 의원및 사무실
- 5F 146평 (분할가능) 병 의원및 사무실
- 4F 146평 (분할가능) 병 의원및 사무실
- 3F 146평 (분할가능) 병 의원및 사무실
- 2F 남양알로에
- 1F LG텔레콤 임대(33평) 골프케어

● 건물위치: 북구 우산동 258-3(말바우사거리) ● **관리사무실 | (062)526-3140 H.P 010-8285-3170**

Happy Family 페스티벌

5월에 브러비아를 샀다 PLAYSTATION®3의 즐거움까지 쏟아졌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Sony가 준비한 즐거움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봄날을 만들어 보세요

즐거움 1

브러비아(KDL-40X2000, 46X2000) 또는 홈씨어(DAV-LF1H)를 구입한 고객은 30명을 추첨하여 PLAYSTATION3 증정

즐거움 2

브러비아(KDL-40X2000, 46X2000)를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White 또는 Black 베젤+환경친화형 스타일링키 증정

즐거움 3

홈씨어(DAV-LF1H)를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브라운 무선 주전자 증정

제품구입 및 문의 | 소니 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 | 소니 공식서비스센터 062)514-3000

SASA & 토포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나갑니다.
신속한 정보: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소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서목으로 가공하였기에, 웅이, 뒤를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